

세계 D램 매출액 폭발적 증가

1/4분기, 2009년 상반기 20% 초과 ... 판매가격 고공행진으로

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2010년 세계 D램 매출액이 3개월 만에 2009년 상반기 총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.

미국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, 2010년 1/4분기 세계 D램 매출액은 95억달러로 2009년 1/4분기 34억달러, 2/4분기 35억달러를 합친 것보다 20%나 늘었다.

디램익스체인지 집계에서도 2010년 1/4분기 D램 시장규모는 92억달러로 2009년 상반기 78억달러를 훌쩍 넘어섰다.

2009년 6개월에 걸쳐 올렸던 매출을 2010년에는 고작 2-3개월 만에 올린 셈이다.

미국발 국제 금융위기의 타격이 극심했던 2009년 1/4분기의 바닥 효과와 더불어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에 높은 개인용 컴퓨터 수요를 타고 D램이 가격과 출하량에서 모두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
특히,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반도체 판매가격은 강력한 힘으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.

디램익스체인지의 통계에 따르면, DDR3 1Gb(기가비트) 메모리 가격은 2009년 1/4분기 0.94달러에서 2010년 2.46달러로 2.6배 올랐다.

반도체 비수기로 분류되는 1/4분기에는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보통이다. 과거 20년간 1/4분기 D램 가격은 전기대비 평균 14.7% 가량 떨어졌다.

그러나 2010년에는 판매가격이 전기대비 2.9% 상승하며 비수기를 완전히 잊은 분위기이다.

아이서플라이는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면 2010년에는 반도체 역사에서 최고의 해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.

다만, 무리한 경쟁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. <저작권자 연합 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5/12>